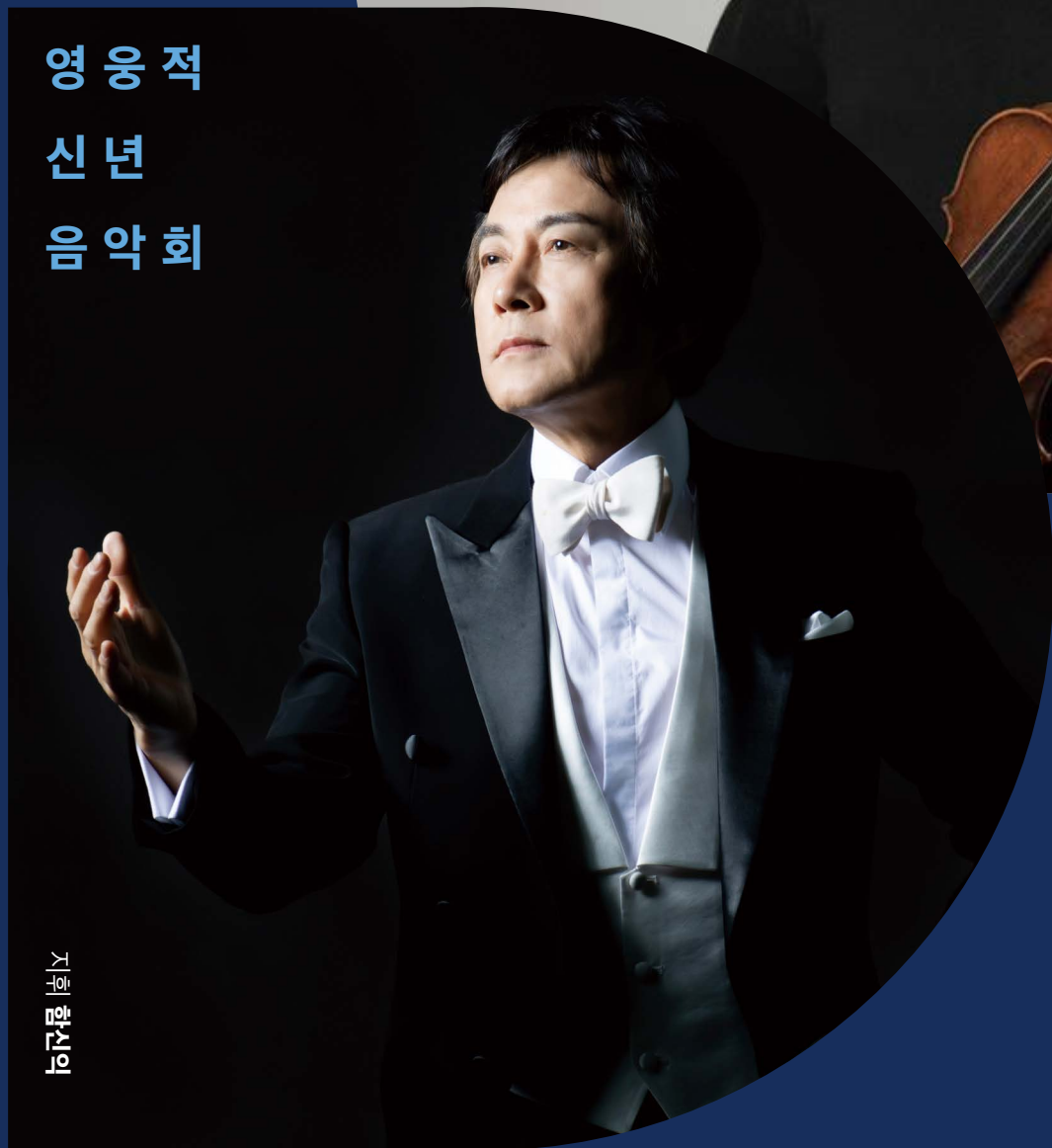


HEROIC NEW YEAR CONCERT

바이올린 | 어
수민 김영수

영웅적
신년
음악회



지휘 | 광교의
박광교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Beethoven |
Violin Concerto in D Major

베토벤 | 교향곡 제3번 '영웅'
Beethoven |
Symphony No. 3 in Eb Major,
'Sinfonia Eroica'

01.11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감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노루그룹
EG
풍산

말러 Circle

세봉
에프에스티
티에스이
K2Webtech
올커뮤니케이션

브람스 Circle

디에스케이
골프존
GFS

브루크너 Circle

윤정웅
김석수

슈베르트 Circle

신승일
면사랑
영앤진세무법인
김일규
함성익
최영애

베토벤 Circle

에스앤아이
엔피코리아
한수향

쇼팽 Circle

다진
이경혜
송백규
문형주
안정근

모차르트 Circle

김원호
내자인
서석호
유애리
이성재
전홍구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하이든 Circle

고윤영
계양 수치과
권영성
권용관
김기태
김성렬
김종혁
박진형
백방미
봉옥 법률사무소
송백규
유재천
이근혁
이미영
이윤희
장윤정
조백일
조수린
최상욱
한문성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 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맡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 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사회공헌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 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한다.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 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Symphony S.O.N.G
 T.02-549-0046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http://symphonysong.com>



심포니 송 YOUTUBE
 검색: 심포니송
 구독  좋아요

지휘자
함신익의

열정과
사명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

함신익의 여정은 평탄한 길을 걷는 여행가보다는 끊임없이 험산준령에 도전하는 등산가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와 가깝다. 소년 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품음으로 음악감성을 깨우치고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에 대한 꿈을 꾸었다.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며 혼신을 다해 빠르게 달리는 축구에 흥미를 가졌다. 지금은 매일 같이 산에 오르며,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음악과 축구와 자연은 자연인 함신익의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주요한 주제이자 요소가 되었으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으로 연결되어 대부분의 연주자들과는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소금 같은, 보석 같은 지휘 능력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교와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 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뺨여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3년간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을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자크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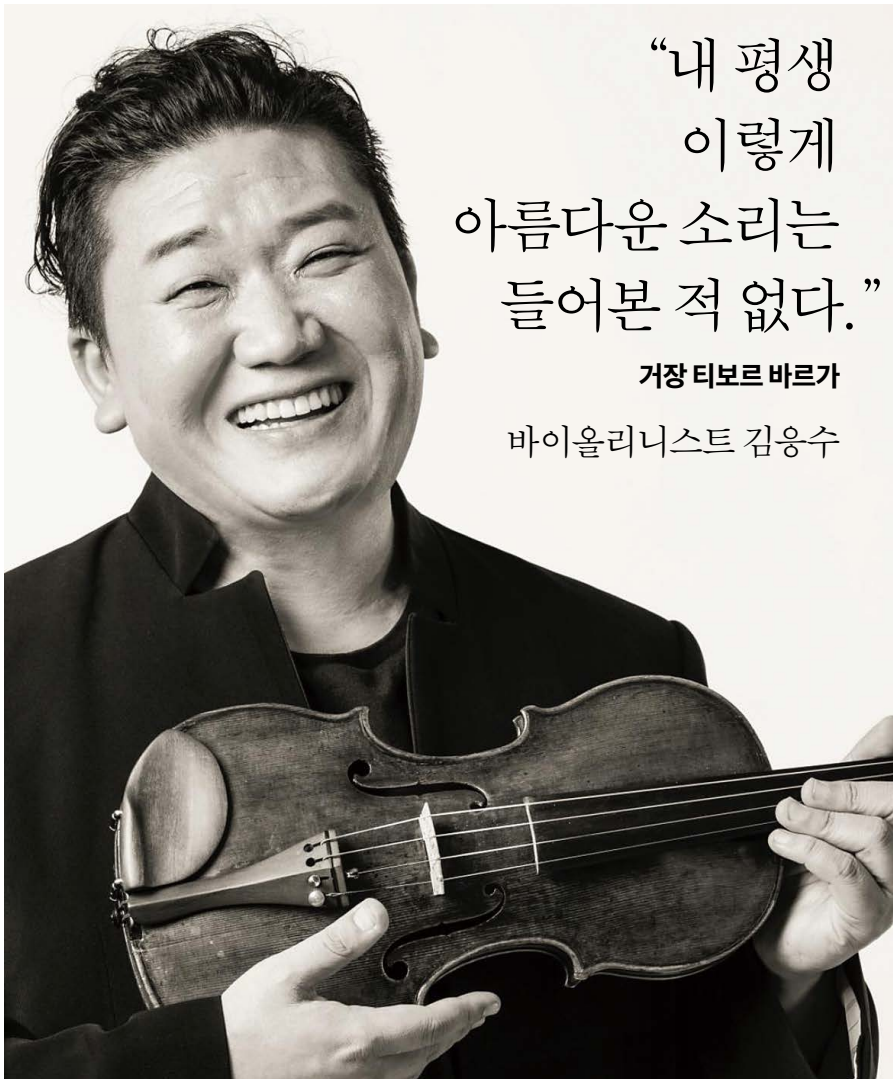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 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기적의 지속가능한 성장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낸 바 있다.

2014년 창단된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지휘자 함신익이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깨고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달린다.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들어본 적 없다.”

거장 티보르 바르가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심포니송의 첫인상

음악가의 순수한 열정으로 다이나믹한 프로그램들을 지휘자 함신익 선생님과 단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하모니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모니라 함은 청중들에게 전하는 연주자 모두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감동을 만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열정이 가득한 오케스트라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심포니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베토벤 협주곡은 아내가 소천한 이후 첫 콘서트 때(2023.04.21.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했던 곡이라 의미가 매우 큰 곡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의 황제라 불리는 베토벤 협주곡은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가지는 수많은 감정의 단계를 아름다운 불협화음과 극적인 해결이 되는 협화음들을 통하여 내면의 강렬함을 표현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자로 데뷔한 이래로 수많은 연주를 베토벤과

함께하였지만, 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협주곡입니다.

Decca, Universal Music에서 발매한

앨범 작업에 대한 회고

Decca 앨범의 <Sehnsucht>이라는 타이틀은 '동경, 그리움'이라는 뜻의 단어로 괴테의 서동시집 중 'Selige Sehnsucht, 지독한 동경'이라는 시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서양 문학에서 동양의 유희적인 사상이 처음 반영된 시집이고, 동양에서 온 바이올리니스트인 제가 서양 악기인 바이올린과 음악에 매료가 되어 작업한 앨범이며 바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작품을 썼던 이자이와 바르톡의 작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앨범인 <Das Leben>은 바이올린으로 그리는 제 삶의 이야기 중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곡들을 모아 앨범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저에게 매우 특별하고 추억 있는 곡들로 구성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E. Elgar - Salut

d'amour, Op. 12(사랑의 인사)'는 추억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앨범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추모하며 녹음하였습니다. 세 번째 앨범인 <Mein Wiener Herz> 비엔나에서 사랑하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곡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만든 앨범이 <Sehnsucht>이며, 어머니를 기억하며 만든 앨범이 <Das Leben>이었고, <Mein Wiener Herz>는 비엔나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떠난 아내와의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들은 저의 Identity와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들입니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

국내·외에서 2024년에 대략 50회 정도의 연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모차르트를 통하여 지금까지 저의 음악 여정을 refresh 하고자 다가오는 1월 28일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연주 및 아다지오 작품 번호 261, 론도 작품 번호 373, 론도 작품 번호 269(국내 초연)의 곡들을 연주하며,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가 계획되어 있고, 점과 선 프로젝트 마지막 시즌 3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과 선 프로젝트는 바이올린 300년 역사의 곡을 30번 연주에 담는다는 취지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점과 선 시즌 1은 2022년 4월, 10회, 시즌 2는 2022년 8월 10회 연주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바이올린 협주곡들도 (베토벤,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1번, 브람스, 드보르자크, 파가니니 등) 연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주자는 수학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와 함께 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것들을 통하여 음악이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바이올리니스트

-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그라츠 국립음대, 독일 하노버 국립 음대 모두 만점, 수석 졸업
- 지네트 국제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1위, 피아트라리구레 국제 콩쿠르 1위, 아바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티보르바르가 국제 콩쿠르 2위, 리피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청중상, 모차르트상, 현대곡상, 비르투오소상 및 3위 입상 등 다수의 콩쿠르 입상
- Decca에서 <Sehnsucht>, Universal Music에서 <Das Leben>, Universal Music에서 <Mein Wiener Herz> 음반 발매
-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루트비히 판 베토벤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61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 61

- I. Allegro, ma non troppo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 II. Larghetto 느린 속도로
- III. Rondo 론도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루트비히 판 베토벤



Symphony No.3 in Eb Major, Op.55 “Sinfonia Eroica”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55 “영웅”

- I. Allegro con brio 빠른 템포로 활기차고 생기있게
- II. Marcia funebre – Adagio assai 장송 행진곡
- III. Allegro vivace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 IV. Allegro molto 매우 빠르게

Ludwig van Beethoven,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 61

이 작품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의 나이 36세 때인 1806년 빈에서 완성되었다. 시기적으로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빈을 점령하여 귀족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면서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영웅’으로 환영받고 있었으며 베토벤은 그의 피아노 협주곡 4번과 영웅 교향곡을 완성한 직후였다. 이 격조 높은 짜임새와 우아한 품격, 선율의 내적인 고상함이 심금을 울리지만 사실 당대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바이올리니스트, 1782-1840)식 화려한 기교와 과장된 표현 등이 유행하던 당대에서 상당히 긴 1악장과 은근히 까다로운 음정, 절제된 표현으로 인해 연주자의 기량이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은 대중의 주목을 끌기 쉽지 않은 면이었다. 40년이 지나서야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 1831-1907)에 의해 세상에서 그 깊은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1악장

Allegro, ma non troppo

청자의 가슴을 잠잠히 두드리는 팀파니의 4개 음 뒤로 제 1주제가 목관에 의해 느긋하게 등장한다. 뒤이은 경과 주제는 절도 있는 강한 음형의 전체 합주로 장관을 이루는데, 그 큰 울림 뒤를 따르는 공간의 여백(세 박의 쉼표)이 숨 막히듯 멋지다. 목관에 의해 부드럽게 등장하는 제2주제는 제1주제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현이 곧이어 단조(minor)로 제 2주제를 반복하고, 주제를 길게 늘어뜨려 상행하는 듯한 종결 주제가 있을 후 드디어 솔로 바이올린이 힘차지만 절제된 몸짓으로 등장한다. 솔로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이미 소개된 모든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꾸미면서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어법으로 풀어나가는데 절제된 기교와 사려깊은 내적 표현들이 격조 높다. 4개 음형의 동기는 악장 전체에 통틀어 여러 번에 걸쳐 클라이맥스를 구성하는데 특히 재현부로 돌아올 때의 전체 합주에 의한 4개의 “D” 음 유니슨(unison)은 숨 막히는 긴장감을 속 시원히 풀어내며 카타르시스와 더불어 환희를 안겨준다. 이 음형은 같은 해 쓰기 시작한 그의 불후의 명곡 운명 교향곡의 주요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후반부에 이르러 등장하는 카덴차(Cadenza)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베토벤은 카덴차를 만들지 않았고 후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첨부하였다.

2악장

Larghetto

격조 높은 1악장의 긴 포효가 끝나면 2악장은 현에 의해 평화롭게 시작된다. 변주곡 형태로 소개된 주제는 바이올린 솔로와 목관에 의해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주로 솔로 바이올린의 변주가 두드러진다. 클라리넷, 바순, 그리고 현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주제 선율 위로 솔로는 애달픈 리듬을 읊조린다. 무서운 듯한 현의 단조 풍의 강렬한 리듬 뒤에 짧은 카덴차가 이어지면 어느 샌가 산뜻한 3악장 론도가 시작된다.

3악장

Rondo

솔로에 의해 경쾌하게 시작된 론도 주제는 전체 합주의 화답으로 일단락 지어지고 이어 1,2악장 동안 참아왔던 솔로의 화려한 기교가 재미있게 풀어진다. 부주제가 아기자기하게 엮이고 마치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듯 솔로의 발랄한 움직임이 재미있다가도 론도 주제로 돌아와 숨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코다에서 거침없이 헤미올라(Hemiola)의 재미있는 리듬으로 내달리다가 조용히 어려워지는 듯 하더니 강한 포르티시모(fortissimo) 합주로 깜짝 놀래 키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Ludwig van Beethoven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Ludwig van Beethoven'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completed in 1806 in Vienna when Beethoven was 36, stands as his only violin concerto. Composed amidst the arrival of Napoleon in Vienna and the aftermath of Beethoven's Piano Concerto and Eroica Symphony, the work initially faced neglect due to the prevailing popularity of Paganini's virtuosic style. However, it gained recognition 40 years later through a performance by the young violinist Joseph Joachim. Today, it holds a prominent place in the violin concerto repertoire.

The movement opens with the timpani's heartbeat, leading to a peaceful first theme. Transitioning to a bold tutti sound, the movement unfolds with powerful moments and a solo violin narrating life stories. The recurring four-note gesture climaxes during the recapitulation, foreshadowing Beethoven's later Destiny Symphony. The absence of a cadenza has allowed various notable violinists to contribute their own. Following the vibrant first movement, the second movement begins serenely with strings. The solo violin takes center stage, bringing a sorrowful rhythm, echoed by woodwinds and strings. A short cadenza gives way to a sudden Rondo, providing a refreshing contrast. The solo violin introduces a joyful theme, echoed by the orchestra. The virtuosic solo, adorned with splendid techniques, playfully interacts with charming subsidiary themes. The coda builds to a thrilling climax before a sudden fortissimo tutti concludes the movement.

베토벤은 그의 3번 교향곡(1803-1804)을 쓸 당시 그의 나이 33세로 당대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는 소위 성공한 청년 음악가였다. 물론 알려진 바대로 그는 이미 청력을 상당부분 소실되었고 1년 전에는 하일리겐 슈타트(Heiligenstadt)에서 스스로 유서를 작성할 만큼 음악가로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가혹한 운명을 음악으로 이겨내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전기(轉機)를 펼쳐나간다. 그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였다. 이 교향곡은 이러한 시기에 쓰인 곡으로 넘치는 에너지와 기치가 가득하며 그의 또 다른 대작 5번 운명 교향곡(1804-1808)으로 연대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된다. 청년 베토벤은 3번 영웅 교향곡을 통해 그의 정치적 영웅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 1769-1821)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전 유럽을 통틀어 전쟁을 통해 혁명을 이끌고 민중을 군주제(君主制)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정착시킬 것이라 믿으며 찬양하며 이 교향곡을 헌정(獻呈)하려 하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황제에 임관하게 되었고 베토벤은 그가 군주제로 돌아간다고 비난하며 그의 배신 앞에 헌정계획을 취소한다. 스케치과정에서 이미 설정된 2악장 장송행진곡은 우연히도 후일의 이러한 사건에 정확히 들어맞아 소위 영웅의 몰락(沒落)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이후 교향곡 형식의 전형을 따르면서 마지막 악장에서 순수음악으로 회귀(回歸)하며 결론짓는다.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3 in Eb major, Op.55
"Sinfonia Eroica"

루트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 마장조, 작품번호 55 "영웅"



1악장

Allegro con brio

세도막 형식에 두 개의 주제와 경과부, 종결주제까지 갖춘 꽤 긴 서주부를 보였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과 달리 베토벤은 오케스트라 강렬한 투티(Tutti)가 단 두 마디의 강력한 “Eb Major” 코드를 외치며 시작한다.

Allegro con brio



[1악장 제 1주제]

제 1주제는 첼로에 의해 장엄하게 등장하는데 마치 영웅의 기품(氣品)을 이야기하는 듯 하다. 주제 동기는 전 악장의 모든 동기, 주제의 기초가 된다. 이후 불규칙한 리듬 군(헤미올라, Hemiola 3박 계통 음악에서 2박 계통 리듬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 경과적으로 등장한 뒤 본 주제가 오케스트라 투티로 반복된다. 이 헤미올라 리듬은 악장 전체를 통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선율 없이 에너지를 응축하여 폭발시키며 강한 무언(無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짧은 경과적 동기가 목관에 의해 순차적으로 나온 후 현파트가 또 다른 경과적 동기를 잠깐 내비치면 말발굽 같은 경쾌한 리듬의 세 번째 경과적 동기가 나온 후 2주제로 넘어간다. 목관과 현파트가 서로 주고 받는 코랄풍의 짧은 제 2주제가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도 잠시, 종결부로 거침없이 치달아 헤미올라의 강함 리듬이 다시 등장하는데 4마디에 걸쳐 6번 울린다.

발전부는 경과부 주제와 1주제를 변형, 발전시키며 많은 이야기들을 펼쳐가는데 화성적인 여정이 참 재미있다. 첫 번째 경과적 동기를 가지고 푸가토를 풀어내어 긴장감을 극도로 높이면 이윽고 선율을 배제한 헤미올라 리듬이 무려 32마디 동안 총 46번의 스포르잔도(Sforzando, 음을 더욱 강조)를 통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린다. 특히 마지막 4마디의 충격적인 불협화음과 뒤따라 가장 큰 음이 기대되는 위치에 심표가 배치되는 파격적인 구성은 우리의 관심을 나폴레옹에게서 베토벤으로 옮기기에 충분하다. 뒤이은 발전부 주제는 매우 서정적이며 새로운데 사실 1주제와 경과부 주제를 섞어 변형, 발전시킨 것이다. 제 1주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숨죽인 듯 긴 구간을 통해 재현부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호른이 다소 조성에서 어긋난 듯 미리 등장하며 우리의 예상을 깨려할 때 짚 주저함 없이 힘차게 재현부가 시작되며 우리를 웃음 짓게 한다. 코다는 또 다른 발전부 마냥 굉장히 긴데 제 1주제와 경과부 3주제, 발전부 주제가 한데 뒤엉켜 훌륭한 장관을 연출한다.

2악장

Marcia funebre - Adagio assai

전 악장의 능률하고 활기찬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데간데없이 우울한 장송행진곡의 주제가 현파트에 의해 시작된다. 론도 주제처럼 모든 섹션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Adagio assai



[2악장 장송행진곡 주제]

주제 전반부의 허전함, 아쉬움과 실망 그리고 주제 후반부의 슬픔과 분노 등의 감정이 한데 엉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18세기 장송곡의 전형(典型)을 잘 따르는 듯 중반부는 장조 조성에서 클라리넷이 희망적인 선율을 노래하면 현파트는 셋잇단음표의 리듬으로 아름답게 꾸며준다.



LUDWIG
VAN
BEETHOVEN

장송예식의 식순을 따른 듯 팡파르가 울리고 전체 구간이 반복되면 다시 장송행진곡 주제가 음울(陰鬱)하게 등장한다. 곧이어 이중 푸가토(두개의 주제를 가진 푸가토)가 근엄함과 두려움으로 가슴 속 깊은 분노와 아쉬움을 표출한다. 푸가토가 조심스레 끝날 즈음 불현듯 금관은 무지막지한 팡파르로 장례 예식의 대미를 장식한다. 플룻과 바이올린의 셋잇단음표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듯 숨을 고르면 처음 장송행진곡 주제군이 재현된다. 곡은 끝날듯 안끝날듯 막바지로 달려가다가 난데없는 새로운 종결부가 등장하는데 정박의 팔분음표와 뒤이은 싱코페이션 음형이 마치 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군중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묘사한 듯 하다.

3악장
Allegro vivace

Allegro vivace



[3악장 스케르초 주제]

스케르초(Scherzo)의 리듬이 경쾌하다. 빠른 걸음으로 농부들이 춤을 추는 듯 흥겨움은 그칠 줄 모른다. 앞선 두 악장의 진지함과 무거움에 대조적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 가볍고 익살스러운 것이 기분 좋다. 중반부는 호른의 사냥 나팔이 울려 퍼진다. 스케르초가 다시 반복되고 중반부에 이르러 흥미로운 리듬의 변칙이 등장하는데 앞서 2:3의 헤미올라의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3:2의 형태로 예고없이 3/4박에서 4/4박으로 순간 변형된다.



[중반부 헤미올라]

4악장
Allegro molto

변주곡으로 순수 음악적 성격이 다분하다. 음악 외적 이야기(영웅)에서 시작하여 순수 음악으로 귀결되는 것이 마치 영웅에 대한 실망을 음악 내에서 풀어가는 듯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폭풍 같은 빠른 음형의 첫 11마디가 시작되면 변주 동기가 현의 피치카토에 의해 등장한다. 사실 이 주제는 각 악장 동기의 근본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교향곡이 4악장에서부터 역순으로 작곡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Allegro molto



[4악장 베이스 변주 주제와 윗성부 대선율]

이 주제는 악장 전체를 통틀어 총 10번 변주된다. 세 번째 변주에서 대선율이 처음으로 가미되고 네 번째 변주에서는 푸가토가 등장하여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여섯 번째 변주에서는 경쾌한 렌테러



(Ländler)가 대선율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재미있다. 새로운 선율이 등장하여도 저음파트에서 주선율은 어김없이 반복된다. 속도는 느려지고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변주는 목관의 코랄에 의해 감격적으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 마지막 열 번째 변주에서는 진정한 영웅의 마지막 등장을 이야기하듯 장엄하며 금관의 팡파르가 승리를 찬양하는 듯 하다. 전쟁 영웅 나폴레옹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순수 음악의 승리 더 나아가 작곡가 본인의 삶의 승리를 예고하는 듯 하다.

글: 박희정 (지휘자/작곡가)

Ludwig van Beethoven's Symphony No. 3 in E-flat Major, "Sinfonia Eroica," Op. 55, composed when Beethoven was 33, reflects his passion and resilience amid personal crises. Dedicated initially to Napoleon, Beethoven withdrew the dedication upon learning of Napoleon's coronation as emperor.

1st, MVT.

Allegro con brio:

Opening with powerful tutti chords, the movement unfolds with a heroic first theme and distinctive hemiola rhythms. The development explores various stories, incorporating fugato and maintaining tension. The recapitulation delivers a surprising burst of energy, leading to a lengthy coda with thematic elements.

2nd, MVT.

Marcia funebre - Adagio assai:

The gallant energy of the first movement gives way to a somber funeral march. Themes of sorrow, anger, and hope unfold, punctuated by fanfares and a double fugato. The movement concludes with a description of mourners leaving the ceremony.

3rd, MVT.

Allegro vivace:

A cheerful Scherzo rhythm brings lightness and joy in contrast to the preceding movements. A hunting horn fanfare adds interest, and an anomalous rhythm in the ending section provides a lively conclusion.

4th MVT.

Allegro molto:

In a variation form, the movement features storm-like passages and a recurring motif. Counter melodies, fugato, and varied tempos create a dynamic journey. The brass's triumphant fanfare in the 10th variation adds a sense of victory beyond political narratives.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3

in Eb Major, Op. 55

"Sinfonia Eroica"





심포니송의 프로들



예술감독	함신익			
바이올린	송지원	임누리	박진형	김동아
	김주희	김희영	문수빈	박지윤
	변수민	성연주	안수민	오하은
	옥영미	이다현	이주은	전지은
	정수임	조아라	최규원	최보경
	최주은			
비올라	임선영	안예림	윤소은	장서윤
	장윤정	정하림	조혜민	황유선
첼로	이길재	배지연	이지혜	이혜인
	장경은	정혜솔	조안나	홍지희
더블베이스	고부현	강선률	김현진	박소연
	윤영진	윤철원		

플루트	김소희	하중수	
오보에	윤민규	이혜빈	
클라리넷	조성호	김민찬	
바순	김윤지	고수경	
호른	이석준	이석재	임정현
트럼펫	이진규	이혜진	
팀파니	Sheng-Wen Lee		
크리에이티브 팀	김동아	신현숙	이성준 장명희
	정연희	최윤정	한지민
	Ryan Broughton		

*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SCHOENFIELD & SMETANA

피아노 김태형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쇤필드 |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Schoenfield |
4 Parables for Piano and Orchestra

스메타나 | '나의 조국' 중
발췌 연주
Smetana |
Selections from 'Má Vlast'

02.22
THU 7:30PM

LOTTE
CONCERT HALL

김태형
함신의

01.11

THU 7:30PM



영웅적 신년음악회

Heroic New Year Concert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 베토벤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김응수



02.22

THU 7:30PM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

Schoenfield & Smetana

- 쇠펠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개의 우화
-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발레
- 지휘 함신익, 피아노 김태형

03.21

THU 7:30PM



쇼스타코비치와 멘델스존

Shostakovich & Mendelssohn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 멘델스존 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한수진

04.19

FRI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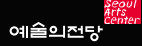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의 보석들: '하프너' '시계' 그리고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The Jewels of Classic Era: Mozart Haydn Mendelssohn

-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 라장조, '하프너'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 하이든 교향곡 제101번 라장조, '시계'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김상균

05.21

TUE 7:30PM



베토벤과 말러의 부드러움을 찾아서

O! Sweet Beethoven and Mahler

- 말러 교향곡 제5번 올림다단조 중 '아다지에도'
- 베토벤 콘서트 아리아, '아! 못 믿을 사람이여'
- 말러 교향곡 제4번 사장조
- 지휘 함신익, 소프라노 양귀비

2024 마스터즈 시리즈에

SYMPHONY S.O.N.G 2024 MASTERS SERIES

함신익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2024 마스터즈 시리즈

당신을 초대합니다

06.27

THU 7:30PM



브람스 페스티벌

Double the Brahms

- 브람스 이중 협주곡 가단조
- 브람스 세레나데 제1번 라장조
- 지휘 루이스 로라셉, 바이올린 김다미, 첼로 주연선

09.26

THU 7:30PM



드보르자크 서거 120주년

Remembering Dvořák

- 드칭 웬 드보르자크를 기리며 (세계초연 위촉곡)
-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 드보르자크 '전설'
- 지휘 함신익, 바이올린 송지원

10.21

MON 7:30PM



낭만의 절정,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ff Special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단조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 지휘 함신익, 피아노 유영욱

11.28

THU 7:30PM



슈베르트와 브람스

Schubert and Brahms

- 슈베르트 교향곡 제4번 다단조, '비극적'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단조
- 지휘 함신익, 피아노 박종해

12.27

FRI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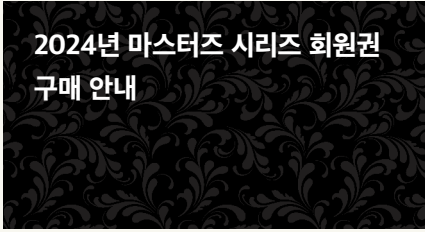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합창'
- 지휘 함신익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이명현 베이스 정인호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과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1월 31일까지 구매 시	10%	R석 10회	1,000,000원 → 900,000원
		S석 10회	700,000원 → 630,000원
		A석 10회	500,000원 → 450,000원

티켓 구매 요령

① 전화구매

02-549-0046

② e-mail

management@symphonysong.com

③ 우편 제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6 (논현동 EG빌딩)
B1 심포니송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 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_____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저희에게는 큰 후원이 됩니다.

‘Melodia’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 _____ 원	
	□ 5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힘이다!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분

이차전지 장비, 카메라모듈장비, AMR(Autonomous Mobile Robot), FPD용 Bonding System 및 In-line System, Linear System, Probe, Laser

-BIO부분

보툴리눔 독소제제 'PROTOXIN' 을 이용한 치료제, 해독제, 바이오베타 제조/생산/판매.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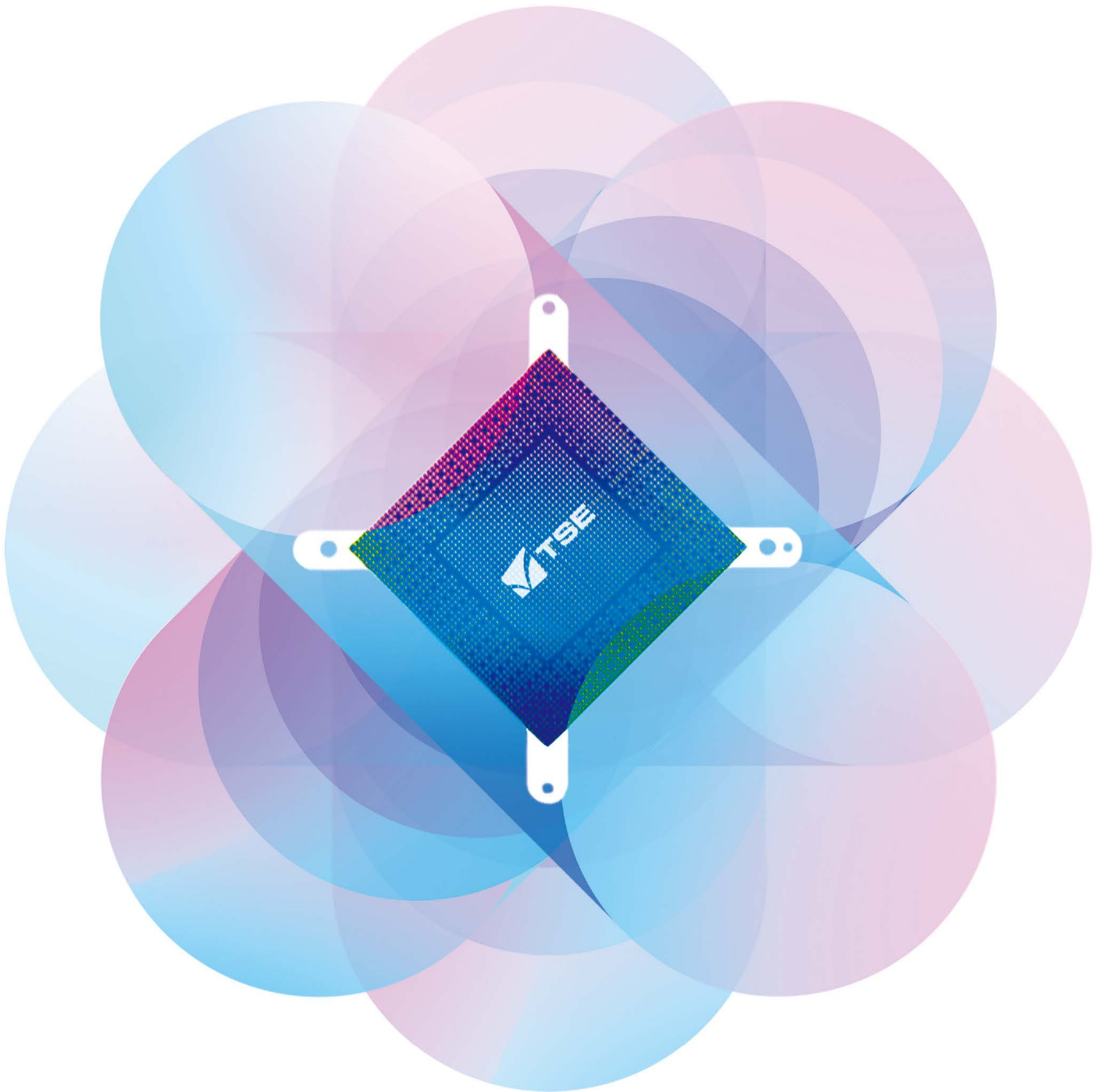
전문약품과 일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 판매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leuto™

레우토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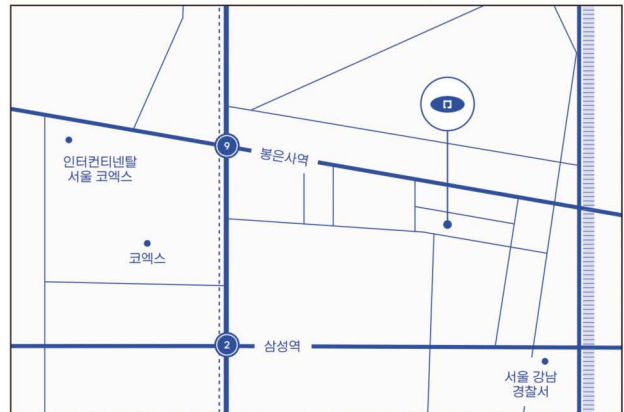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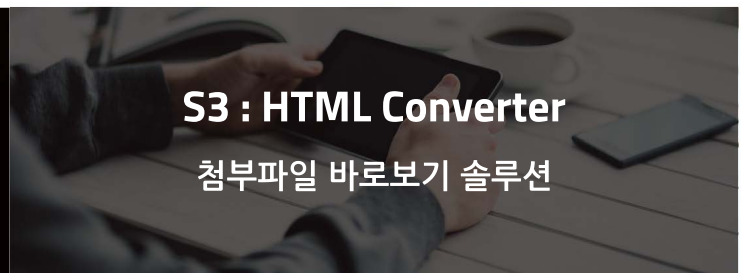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품발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정기후원

(자동이체로 더 편리해진 후원)

심포니 송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024시즌 후원 회원 모집



목표회원: 100명

2024년 1월 현황: 30명

후원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마스터즈 시리즈 티켓 할인 (10%) *1회 한

매달 활동사항과 공연정보 제공

오픈 리허설 참관특혜

연 2회 살롱 콘서트 초청

예술감독과의 연례 대화